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22. 11. 25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○ 튀르키예, 시리아·이라크 북부에 보복성 공습

- 11.19 튀르키예는 시리아와 이라크 북부 지역 마을에 25차례에 걸친 공습을 단행하였으며, 언론은 해당 공습이 지난 13일 이스탄불 폭탄테러 배후로 지목된 쿠르드 무장세력에 대한 보복성 공격으로 추정된다고 보도
 - * 튀르키예 국방부는 이번 공습이 UN 헌장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

○ 英 ISIS 신부,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 주장

- 11.21 일명 ISIS 신부로 알려진 「샤미마 베굼」(23)의 변호인은 특별 이민항소위원회에서 同人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테러조직에 모집된 미성년 인신매매 피해자라고 주장
 - * ISIS 대원과 결혼·출산하고 ISIS를 옹호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권 박탈

미주

○ 美 상원, 국내 극단주의자 위협에 대한 DHS·FBI의 대응 부족 지적

- 11.17 美 상원 국토안보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국토안보부와 FBI가 백인 우월주의 등 국내 테러가 자국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지했으나, 국제 테러리즘 대응에 치중하는 등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다고 주장
 - * 또한, 4대 주요 소셜 미디어(Meta, Twitter, YouTube, TikTok)의 경우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 등으로 인해 온라인상 극단주의 콘텐츠 확산에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

○ 美, 게이클럽에서 혐오범죄 의심 총격 사건으로 5명 사망

- 11.20 언론은 美 콜로라도주 소재 게이클럽에서 혐오범죄 의심 총격 사건이 발생했으며(사망 5, 부상 18), 용의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어 치료 중으로 정확한 범행 동기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
 - * 同 클럽은 “총격범을 제압해 혐오범죄를 막은 영웅적 고객들께 감사드린다”고 발표

아 · 태평양

○ 印 총리, 테러지원국 대상 비용 부과 주장

- 11.19 언론은 지난 18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3차 테러대책장관회의에서 「모디」 총리가 “테러범들을 보호하는 것은 테러를 조장하는 것과 동일하므로, 테러지원국에 비용을 부과해야한다”고 강조했다고 보도

* 또한, 「모디」 총리는 일관되고 무관용적 접근만이 테러를 막을 수 있다고 부언

○ 강원도, '다중이용시설 대테러·보안 워킹그룹' 출범 추진

- 11.20 언론은 오는 23일 강원도청 주관으로 강원도 내 다중이용시설 대상 대테러·보안 분야 협력강화를 위한 워킹그룹 출범식을 강원랜드 등 도내 7개 주요 다중이용시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예정이라고 보도

* 워킹그룹에는 국정원과 강원소방본부도 참여, 다중이용시설 보안 관계자 대상 대테러 교육훈련 지원 및 테러 예방 정보 공유 예정

중 동

○ 알카에다, 무슬림 대상 '카타르 월드컵' 참석 자제 촉구

- 11.18 언론은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(AQAP)가 성명을 통해 “월드컵이 부도덕하고 무신론적인 반이슬람 세력을 끌어들이었다”고 비난하며 무슬림들에게 월드컵에 참여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고 보도

* 다만, AQAP의 경고가 직접적인 공격이나 폭력을 조장하지는 못했다고 부언

아프리카

○ 말리, UN평화유지군 사제폭발물 피습으로 3명 부상

- 11.22 언론은 21일 아프리카 말리 팀부쿠 지역에서 도로에 설치된 사제폭발물 공격으로 UN평화유지군 3명이 부상당했으며, 최근 서방 국가들이 병력을 철수시키면서 사상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

* UN은 철수로 인한 병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총원 방안 논의 중

나이지리아 10대 소녀 시장 연쇄 자폭테러

- '14.11.25, 오전 10대 소녀 2명이 나이지리아 북동부 보르노州의 州都 마이두구리市 먼데이마켓 시장에서 연쇄 자살폭탄테러를 자행, 최소 45명이 사망하고 15명 부상
- 현지 경찰 당국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,
 - 히잡을 착용한 2명의 10대 소녀가 인파로 붐비는 시장에 진입하여 순차적으로 폭탄을 터트렸는데
 - 1차 폭발로 사상자가 발생하며 사람들이 구조를 위해 현장으로 몰려들자, 아기를 업은 것처럼 등 뒤에 폭발물을 숨기고 있던 두 번째 테러범이 기다렸다는 듯이 폭탄을 재차 터트려 추가 인명피해 초래
- 사건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없었으나, 일부에서는 그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이 여러 차례 유사 방식의 테러를 자행했다는 점을 들어 이번 사건도 同 단체의 소행으로 추정
 - * 지난 7.1 同 시장에서 차량폭탄테러로 상인과 방문객 등 56명이 사망하였으며, 11.19과 11.20에도 同 지역에서 테러가 발생, 각각 45명 및 48명 사망
- 이런 상황에서, 전문가들은 나이지리아 북동부의 20여개 도시와 마을을 장악중인 보코하람이 남성에 비해 수색 가능성이 낮은 성인 여성은 물론 소녀들까지 자폭테러에 전략적으로 이용중이라고 분석
 - * '14.7~8월간 나이지리아에서는 총 19명의 보코하람 여성 조직원들이 체포된 상황

< 보코하람(Boko Haram) >

- (결성) '서구식 교육은 죄악' 이라는 뜻이며, '02년 「무함마드 유수프」가 조직
 - * 테러단체 지정 : 영국('13.7월), 미국('13.11월), UN('14.5월)
- (핵심인물) 「아부바카르 셰카우」(現 최고 지도자)
- (연계세력) ISIS, 바쿠라그룹
- (활동지역) 나이지리아(요베·카노·바우치·보르노·플래토州 등 중·북부), 카메룬 북부, 차드 서부, 니제르 남동부 일대
- (활동수법) 對정부 게릴라戰, 마을 습격 및 민간인 무차별 학살
- (참고사항) '15.3월 「아부바카르 셰카우」가 ISIS에 충성을 맹세하였으나, '16.8월 ISIS가 「알 바르나위」를 신임 지도자로 임명하자 내분 발생, 이후 「아부바카르 셰카우」가 이끄는 보코하람과 「알 바르나위」의 「ISIS-西아프리카지부」로 분열